사흘간 최고 40㎝ '눈폭탄'…피해 '눈덩이'

곳곳 빙판길에 '블랙아이스' 여전 교통·안전사고도 속출
광주·전남 시설하우스·축사·퇴비사 파손 등 피해 이어져

지난 주말 3일간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40㎝의 눈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이후 눈은 그쳤지만 곳곳이 빙판길로 방치돼 있는 데다, 영하의 날씨로 '블랙아이스'가 태반이어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적설량은 광주 40㎝, 장성 36.1㎝, 담양 25.9㎝, 곡성 20.4㎝, 나주 19.5㎝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최저기온은 장성 영하 17도, 구례 영하 15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광주지역 피해는 시설하우스 9동(서구 1동, 북구 8동), 전남은 9개 시·군에서 181동의 시설물에서 11억8천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남지역의 경우 농업 분야는 8개 시·군(담양·장성·순천·곡성·보성·화순·강진·영광) 시설하우스(딸기·토마토·마늘·체리·블루베리 등) 84농가 137동(8만184㎡)이 파손돼 7억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담양이 마늘·딸기 등 53농가 85동(5만6천948㎡)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장성에서도 토마토·딸기 등 21농가 36동(1만8천75㎡)이 무너졌다.

축산 분야에서는 7개 시·군(순천·담양·곡성·보성·화순·함평·장성) 13농가 35동(1만2천647㎡)의 축사·퇴비사가 파손돼 4억5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기록했다. 수산 분야의 경우 담양군 금성면 소재 2어가(뱀장어·미꾸라지) 9동의 양식장(1천700㎡)이 2천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날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는 구례 노고단 도로(3월까지)와 진도 두목재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유시설 피해는 내년 1월3일까지, 공공시설은 오는 31일까지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대설·한파 피해상황 보고회의를 열어 신속 복구 및 피해 누락 없도록 조사 철저, 주민 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제설이 완료됐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해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교량, 고갯길 등 잔설 정리와 국부적인 작은 구멍(포트홀)을 신속히 긴급 보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어가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눈이 그친 지 3일 째인 이날까지도 빙판길 교통사고는 계속됐다.

이날 오전 8시42분께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 동림IC 인근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얼어붙은 도로에 뒤따르던 차들이 6중으로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속도를 내지 않은 상황이어서 1명만 경상을 입었지만, 현장 정리 과정에서 한 차로가 통제돼 출근길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47분께 북구 용두동 한 공장에서 근로자 A(47)씨가 공장 지붕 위에서 눈을 치우다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등과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6시59분께에는 구례군 성삼재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SUV가 눈길에 조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도보로 접근, 3시간여 만에 구조했다.

또한 오후 12시55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동 한 식품공장 인근 도로에서 A(65)씨가 몰던 1t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공장 마당에서 썰매를 타던 9살 B군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재정·오복기자

"지하철 입구 계단 빙판길 걷기 힘들어요"

미끄럼 방지 장치·지붕 없어
쌓인 눈에 시민들 큰 불편
"내년 전체 논슬립 설치 예정"

26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지하도상가 7번 출구에서 폭설로 인해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계단을 시민들이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지하철 타러 가는 길 너무 험난하네요. 차량이 다니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 확보가 우선 아닌가요."

26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금남지하도 상가 7번 출구 앞. 한 노년부부는 난간을 꽉 잡고 계단 한 칸 한 칸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이동했다.

금남로 지하도의 입구 계단은 캐노피(지붕)가 없는 탓에 쌓인 눈이 제설 후에도 남아있었고, 논슬립(미끄럼 방지 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은 낙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입구 앞에 선 사람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발을 바닥에 굴러 눈을 털며 계단을 내려갈 준비를 했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내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었다.

시민들은 살얼음이 낀 계단을 이동하면서 한결같이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특히 지난 사흘 간 내린 폭설로 지하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하도를 어렵사리 내려간 중년부부는 "며칠 간 눈이 많이 내려 버스가 원활히 운행하지 않아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다"면서 "가파른 계단에 제설도 완전히 되지 않고, 미끄럼 방지 장치도 없어 이동할 때 마다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폭설로 인해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장소로 이동한다는 김모씨는 "인도나 지하철 계단 등 제설이 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도로 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설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지하도로를 평소에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계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매일 이 지하도 계단을 이용한다는 김모(79)씨는 "평소에도 이 계단은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다. 주변사람들도 이 길을 지나다니길 꺼린다"면서 "눈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계단이 미끄러워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 황모(64)씨는 "이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가파르고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는 계단이 안전 상 우려된다"며 "뭐라도 안전에 도움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더러 눈에 띄었다.

최모(72)씨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더 돌아가야 하지만 혹시 넘어질까봐 계단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리주체인 광주시도시공사는 제설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경비원 7명과 시설관리원 5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며 "눈이 오기 전부터 1시간마다 계단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안전의 중요성 증가와 관련 민원 등에 따라 내년에는 논슬립을 전체 지하도 계단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지 수습기자

목포해경, 마약류 소지·투약·운반 4명 검거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판매책 등 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2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A(20대·베트남 국적)씨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올해 6월부터 충북 청주, 고흥 등 A씨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잠복 탐문 수사 결과,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A씨와 B(30대·여)씨를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천만원 상당 마약류가 발견됐다.

이어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C(20대·베트남 국적)씨와 D(20대·여)씨를 추가 체포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마약류 매매·소지·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후 4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3명, 불구속 1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동구 어린이집 13명 집단 장염…역학조사

광주 동구 한 어린이집 원생 13명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려 지자체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구립어린이집 1곳에서 원생 13명이 장염에 확진됐다.

이 중 11명이 장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미열과 설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상이 있는 원생 나이대는 2-4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장염의 원인을 밝히는 역학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날 오전 어린이집에 방문해 화장실 매트·교실 손잡이·장난감 등에 대한 검체를 추가로 채취했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에서 6일 동안 급식한 음식물이 담겨 있는 보존식을 수거했으며, 장염에 걸린 어린이에 대한 검체도 채취했다.

동구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린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광주 동구에 있는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이 구토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23일 3명, 24일 6명, 25일 1명이 잇따라 장염 증상을 보이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생은 총 27명으로 모두 같은 급·간식을 먹었다.

23일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 먹는 활동이 있었지만 참여한 원생 중 3명만 장염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복기자